

# 한손에 쏙 ‘컴팩트 사이즈’... 30분새 완판 ‘플립 돌풍’

## 삼성 ‘갤럭시Z플립’ 출시

코로나19에 ‘온라인 마케팅’ 강화  
165만원대 ‘가격 안정’, 2개 색상  
갤럭시S20, 20일 사전예약 실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 플립형 폴더블(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소비자들과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대대적인 오프라인 체험 행사를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1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와 자급제 물량을 합쳐 국내에 풀린 갤럭시Z플립 초도 물량은 약 2만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는 출시 첫날 오전 중 전량 판매를 기록하며, 젊은 세대를 위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고객들이 ‘갤럭시Z플립’을 사용하고 있다. /KT

전자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의 경우 지난해 출시 초기 수백~수천 대만 한정 판매돼 품귀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갤럭시Z플립은 접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가 특징으로, 출고가는 165만원이다. 색상은 미리 퍼플, 미리 블랙 등 두 가지다. 특히 출고가 239만원에 달했던 ‘갤럭시폴드’와 달리 가격이 165만원대로 낮아지며,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도 낮아질 것을 예상된다.

개통 첫 날인 지난 14일 LG유플러스의 공식 온라인몰인 ‘U+Shop’에서 갤럭시Z플립 초도 물량이 30분만에 전량 판매됐다. U+Shop에서는 오전 8시 50분부터 갤럭시Z플립 판매를 시작해 초도 물량 완판 후에도 현재 2차 예약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완판 이후 가입을

신청한 고객의 개통은 2차 물량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은 온라인샵 T월드다이렉트에서 갤럭시Z플립을 구매하면, 갤럭시Z플립 전용 아라리 케이스 2종을 증정한다. T월드다이렉트에서 ‘오늘도착’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갤럭시Z플립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전문 상담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개통부터 데이터 이전까지 마무리해 준다.

KT의 온라인몰 KT샵에서는 ▲KT 멤버십 포인트 ▲제휴 포인트 ▲KT샵 모바일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활용해 저렴하게 갤럭시Z플립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KT샵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KT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고객 케어 서비스 ‘여기오지’를 제공한다. 여기오지를 통해서도 중고폰 보상, 빠른 배송 & 개통, 데이터 백업, 필름 부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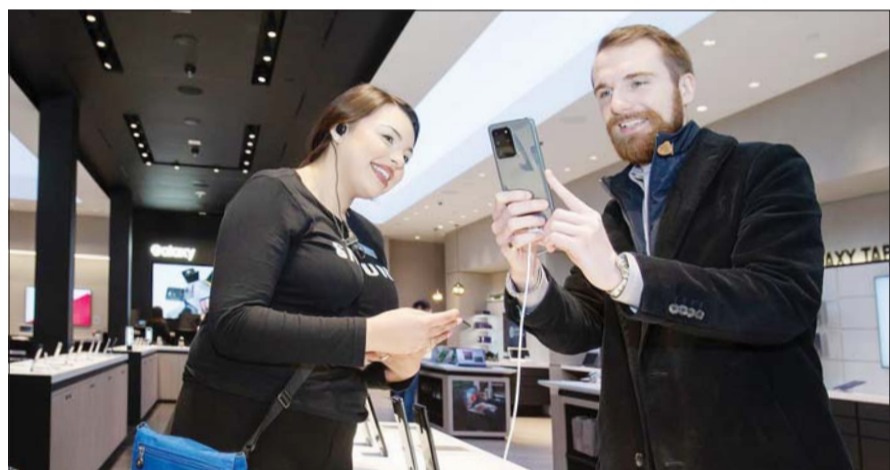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자사 온라인몰 U+S

hop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무선 충전 패드, 차량용 충전기, 보조 배터리 등 다양한 사은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갤럭시Z플립 이용자를 위해 신규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오는 20일 출시한다. ‘폴드 분실·파손 190’은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 시 손해액의 20%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최대 190만원까지 보상을 준다. 월 보험료는 7700원으로 보상한도 대비 크게 최저 수준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내달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20’ 단말 개통 행사도 취소하며,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다. 갤럭시S20은 20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27일 선개통을 거쳐 내달 6일 출시된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지난 6일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갤럭시S20 사전예약기간을 기존 14~28일(15일간)에서 20~26일(7일간)로 줄이고 공시지원금을 정식 출시일까지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애플 심장부 美 실리콘밸리에 문 연 삼성 체험매장  
매장에서 고객이 갤럭시 S20 울트라를 체험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삼성전자

## 현장에서

‘갤럭시Z플립’ 출시... 오프라인 반응 살펴보니

## “폴더폰 감성에 기능까지 빠지는게 없어” 저렴한 가격+휴대성, 소비자들 ‘엄지척’

소비자 “디자인·기능 모두 만족”  
광고 보고 관심, 대부분 구매 의사  
가볍고 원하는 각도로 접혀 매력

갤 폴드 比 물량 10배 많지만  
조기 소진에 없어서 못 팔아  
향후 구매자 더 기다릴 수도



갤럭시Z플립을 접었을 때(왼쪽)와 펼쳤을 때의 모습. /구서윤 기자

##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82세 남성

해외여행력 無, 확진자 접촉도 없어  
심장질환 검사차 병원방문 후 확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9시 기준 29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총 29명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4면>

중대본과 의료계에 따르면 29번째 환자(82세 남성, 한국인)는 해외여행력이 없고,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니다. 이 환자는 당초 동네병원에 방문했다가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전날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해외 여행력이 없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가지 않았다. 의료진은 심장질환을 검사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었고, 판독 결과 폐렴이 확인됐다. 과거 메르스를 경험했던 의료진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자 병원 은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대병

원)에 격리됐다.

중대본은 29번째 환자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29번째 환자는 고대안암병원에 가기 전 개인 의원을 2곳 정도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곳에서 실제 어떻게 진료가 이뤄졌는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환자가) 감염력(전파력)이 있었던 시기였는지에 대한 조사와 소독이 완료되면 (병원명 등) 세부사항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현재 29번째 환자의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발생한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이 환자의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인 아내는 특이 증상이 없는 상태다. 두 사람의 거주지는 서울 종로구다.

신규 환자가 발생한 건 확진일(10일) 기준으로 7일째, 정부 발표일(11일) 기준으로는 6일째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이 출시된 가운데 실물을 보려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판매점에 몰리고, 온라인에서는 제품이 조기 품절되는 등 초반 관심이 뜨겁다. 저렴한 가격과 휴대성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출시일인 14일 오후 2시경 삼성디지털프라자 흥대점을 찾아 소비자 반응을 살펴봤다.

매장 내부는 갤럭시Z플립과 ‘갤럭시S20’ 시리즈를 체험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삼성디지털프라자 관계자는 “평소에는 사람이 이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신제품을 직접 보기 위해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4대가 전시된 갤럭시Z플립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첫번째 폴더블 폰인 ‘갤럭시폴드’와 함께 전시해 두 제품 간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갤럭시노트9을 사용 중인 김도겸(22) 씨는 “옛날에 모토로라 제품을 좋아했는데 갤럭시Z플립이 그 느낌과 비슷하고, 여태 나온 제품들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끌린다”며 “고민해볼 고 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S10을 사용 중인 하모 씨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는데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떨어지지 않아서 바로 구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폴드 사용자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경일(20) 씨는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폴드는 무거웠는데 갤럭시Z플립은 작고 가벼워서 봄, 여름에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힙지가 프리스탑이라 원하는 각도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구매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김 모(67) 씨는 “광고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보러 왔는데 접히는 거 말고는 좋은 점을 모르겠다”면서도 “사고 싶은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이날 갤럭시Z폴드를 체험하고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발길도 많이 보였다. 매장 관계자는 “지금 예약하는 고객들은 빠르면 1주에서 2주 내에 받게 된다”며 “제품 공급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내일 이후 구매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는 갤럭시Z플립 출시 후 첫 일주일 동안 통신3사와 자급제 물량을 합쳐 대략 2만대 수준의 물량이 국내에 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갤럭시 폴드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국내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도 자급제 모델 판매를 시작했지만 조기에 소진됐고, 물량을 적게 배정받은 일부 판매점에서도 갤럭시Z플립이 판매 30분 만에 완판됐다. 해외 시장 반응도 좋다. 미국에서 갤럭시Z 플립 판매가 시작된 당일 오전 삼성전자 미국 웹사이트에서 자급제 모델이 품절됐고, 싱가포르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갤럭시Z 플립이 출시 1시간 만에 초도물량이 다 팔렸다.

갤럭시Z플립 출고가는 165만원으로, 과거 폴더폰과 접는 방식이 유사한 클램셀(조개껍질) 형태의 폴더블 폰이다. 갤럭시Z 플립은 갤럭시S 시리즈처럼 대량 생산되는 스마트폰이 아닌 만큼 물량이 넉넉히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